“직지뮤지컬 불교모독”

불교계, 충북도언론호법위 대응

“스님과 비구니가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불교계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불교계가 ‘직지 창작뮤지컬’에 대해 강력한 반발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처음 선보인 청주시립합창단의 창작 뮤지컬 ‘직지 묘덕을 만나다’는 직지를 만든 백운화상과 비구니인 묘덕과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내용이다.

이에 불교계는 “스님들이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불교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 밖에도 직지 뮤지컬의 문제점으로 △백운화상의 제자인 2명의 스님이 대장장이로 묘사된 점 △백운화상의 행동이 희화돼 스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는 점 △금속활자의 제작법과 직지의 프랑스 유출과정 등이 부정확 하다고 지적했다.

불교계의 이 같은 반응에 청주 남상우 시장은 10월 10일 충북불교총연합회(회장 노현), 충북도언론호법위원회(사무총장 혜춰)등 불교계 관계자들을 만나 “청주시립합창단의 창작뮤지컬이 불교를 비하한데 대해 유감”이라며 “불교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으나 예술성과 재미를 가미하다보니 오류를 범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청주시립합창단은 11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불교계에 파장을 일으키게 된 점을 공식 사과했다.

청주시는 앞으로 직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정진하며, 뮤지컬 ‘직지 묘덕을 만나다’ 공연여부에 대해서는 불교계의 자문을 받아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정산 스님 개인전 개최

인사아트센터3층서, 23~29일

사찰음식 연구가이자 매니큐어 작가인 정산 스님 개인전이 9월 23~29일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3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 작품들은 이전보다 색의 사용에 있어 다소 화려하며, 형태의 추상성이나 직선적 접근이 시도된 것이 특징이다.

김광명 교수(숭실대 예술철학)는 정산 스님의 작품에 대해 “스님의 작품은 무욕의 맛과 관조의 멋을 보았으며, 자기 인식과 자기이해, 곧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했다”고 밝혔다.

정산 스님은 작품의 재료로 매니큐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깨져 조각난 도자기의 상처와 흠집을 가리기위해 사용한 것이 지금은 작품의 주재료가 돼버렸다.

불성(佛性)을 찾아가는 수행의 과정에서 자신의 예술적 창작의 영감을 얻는 스님은 “작품이 전시장을 둘러보는 관객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비춰보는 거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35-0312 이은정 기자

뮤지컬 2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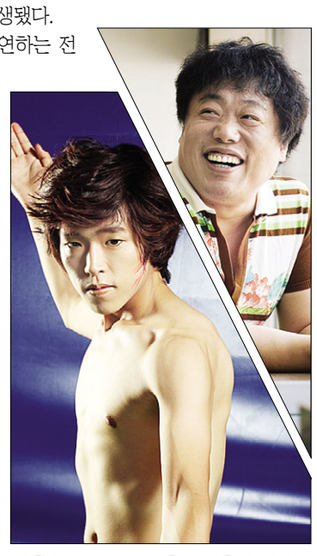
● 타타 IN 붓다

불교, 태권도와 만나

백재현 연출… 10월 20일부터 공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태권도가 본 떼를 보여주려 한다. 개그맨 출신 백재현은 이번 뮤지컬 ‘타타 IN 붓다’의 연출을 맡아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는 태권도의 진정한 매력을 제대로 느끼게 했다. 태권도를 다름 아닌 불교 스토리와 접목시켜 웅장하고 장엄하게 만들어 연출한 것이다.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번 뮤지컬은 태권도의 역동적인 동작과 만나 또 다른 예술작품으로 탄생됐다.



연출을 맡은 개그맨 출신 연출가 백재현(위), ‘타타IN 붓다’에서 ‘타타’역을 맡은 태권도 배우 최호경.

특히, 뮤지컬에 출연하는 전원은 태권도 유단자로 극을 스피디하고 화려하게 이끌어 무대의 볼거리를 한층 극대화 시킨다. 노예출신 장수 ‘타타’와 ‘싯다르타’의 인간적인 고뇌를 다룬 감동적 스토리, 아름답고 신비로운 태권도 기술이 스펙터클한 무대로 완성됐다.

또한 뮤지컬에 가장 중요한 음악은 기품있는 이미지를 고려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작곡됐다. 총 21곡으로 이 음악들은 태권도의 각종 품새, 기술 등이 극중에서 적절하게 표현되도록 구성됐다.

세계적으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동경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태권도와 동양의 대표 종교인 불교의 만남은 필연일지도 모른다. 제작사 쇼엘은 이러한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태양의 서커스’처럼 뮤지컬 ‘타타 IN 붓다’가 세계적 진출을 목표로 최강의 문화상품이 되도록 할 것”이며 “이미 세계인을 감동시킬 준비는 됐다”고 포부를 밝혔다.

‘타타 IN 붓다’는 10월 20일~11월 27일 국립극장 KB청소년 하늘극장에서 공연되며, 뮤지컬 배우 임춘길, 전수미와 태권도 배우 40여 명이 출현한다. (02)3674-1010

뜨거운 태양 아래 선글라스 너머로 수영복 차림을 흘끔거릴 수 있었던 여름은 솔로들에겐 천국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슬슬 옆구리 시려오는 계절이 다가오고, 고독한 가을은 솔로를 더욱 외롭게 만드는 법. 솔로 탈출을 외치게 하는 뮤지컬이 가을을 맞아 연이어 공연된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나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이번 공연들은 불교적 소재를 갖고 현대적이고 감각적으로 풀어내 한층 더 재미와 감동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 달마야 놀자

엉뚱건달 VS 시크스님

달마밴드 공연 볼거리, 12월 공연

이미 영화로 제작돼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달마야 놀자’가 뮤지컬로 다시 돌아왔다. 뮤지컬로 제작된 ‘달마야 놀자’는 전작에서 보여준 제목과 재미는 그대로 살리되 또 다른 이야기로 관객들을 웃음의 도가니로 빠뜨린다.



영화로 제작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달마야 놀자’.

이번 뮤지컬은 다소 엉뚱한 건달들과 시크한 비구니스님들이 만나 산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단순한 남녀의 성대결이 아닌 그들이 만들어 내는 이야기를 통해 황당하지만 유쾌한 코믹액션 뮤지컬로써, 유쾌하고 상쾌한 스토리와 박진감 넘치는 액션들로 관객들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릴 예정이다.

이 공연은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화해와 상생의 의미,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휴먼감동 스토리다. 또한 참 ‘生’의 메시지인 불교의 정서를 재밌고 친숙하게 표현해 불교의 대중화를 기대하게끔 만드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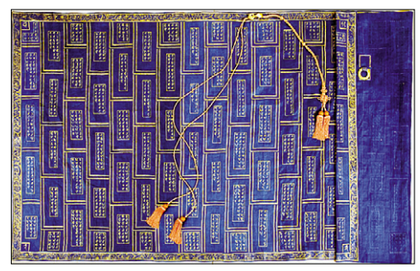
‘달마야 놀자’는 어디서도 잘 다뤄지지 않았던 비구니스님들의 삶과 무섭지만 어딘가 어색하기만 한 건달의 대립을 코믹한 액션과 흥겨운 음악으로 풀어냈다. 특히 공연에서 나오는 ‘산사축제 달마야 놀자’에서 달마밴드가 함께 공연하는 장면 등은 극중 가장 볼거리로 꼽힌다.

한편 ‘달마야 놀자III’는 국립극장 KB청소년 하늘극장에서 12월 오픈하며,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10년 1~3월 공연된다. 연출은 ‘싱싱싱’ ‘에비타’의 배해일이 맡았으며, 극본은 ‘남자 넌센스’ ‘과거를 묻지마세요’의 정세희 작가가 맡았다. 또한 ‘다 줄거야’를 부른 가수 겸 작곡가 조규만이 음악에 참여했다.

이번 뮤지컬에는 가수 겸 배우인 임창정이 출연할 예정이며, 작품에 출연할 신인배우를 모집 중이다. 공개오디션은 21~23일 진행된다. (02)2051-9915

명천 스님 대상

불미전, 17일 불교중앙博서





대상 수상작인 명천 스님의 ‘복전의(福田衣)’(위)와 최우수상 수상작 채윤지의 ‘대세지보살도(부분)’.

전통 예술을 계승하고 미래의 불교미술의 장인 제24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이 9월 17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고 동시에 현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번 불미전에는 총 60점의 작품으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6점, 특선 20점, 입선 28점이 당선 됐다.

당선작으로는 대상 공예부문에 명천 스님 ‘복전의(福田衣)’, 최우수상 조각부문에 김영찬 ‘마애불’, 회화부문에 채윤지 ‘대세지보살도’등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2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문화재청장상도 추가로 받는다.

그 밖에 우수상에는 조각부문에 김광언 ‘지장보살’, 회화부문 전미향 ‘아미타극락구품회도’, 이영의 ‘도세’가 최종 심사를 통과했으며 작품들은 9월 17~30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불교미술대전은 1970년 불교미술전람회로 시작하여 39년을 맞이했으며, 이번 행사는 격년제에서 매년시행으로 전환한지 3년째 되는 해로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 도약했다. (02)2011-1772 이은정 기자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2010 불교달력출시
달력가격 대폭인하
공장→사찰 직거래판매
창립35주년 기념세일(임시할인가)
생산자
도매상
불교상회
사 찰
12절 100,000원 (100부)
다이어리 120,000원 (200부)

7호 가람의 향기

10호 동자승의 하루

32호 나를 다스리는말
※ 달력카다록 ·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 [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011-554-2988